

## 치 사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생명의 기운은 당해낼 수 없어, 산과 들에는 꽃들의 잔치가 한창입니다. 이처럼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절기에 제2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을 봉행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운율이 있는 글로 울림을 담아 표현한 언어 예술입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해오는 동안 문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성 있고, 향기로운 정신을 지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사상과 정서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불교문학은 수행정진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어 문학예술의 으뜸이자 정신의 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문명의 발달과 각박한 현실 문제로 인해 반목과 불신이 만연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할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에게 무욕의 정신과 자타불이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학은 이러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긴요한 수단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꽃향기를 드리우고 정신문화의 삶을 선도해 나가는 문학인 여러분이야말로 종교가 갖는 역할과 책무를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수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와 나를 구분 짓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며 모든 생명을 깊이 존중하는 창작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먼 미래까지도 훌륭한 가치로써 인류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하는 수상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정진하는 마음이 점철된 오랜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불교문학의 발전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스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